

“일단 이기고 보자”...파이널A ‘실낱 희망’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

광주FC, 20일 성남 원정 정규리그 마지막 일전

강원·서울 모두 패하고 성남戰 승리면 파이널A 막차
펠리페·윌리안·엄원상 삼각편대 재가동 ‘총력 승부’



프로축구 광주FC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상대로 K리그1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점하며 0대1로 석패했다. 내심 파이널A 진출을 노렸던 광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7경기 연속 무패 (2승 5무) 종료, 대구

-전북·울산 등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에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에 머물렀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아쉬움을 발판 삼아 전열을 다듬고 다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력진출이 무산된 광주로서는 정규리그 마지막 승부인 성남과의 경기에서 파이널A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건다.

5위 대구가 승점 30점으로 파이널A를 확정지은 가운데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6위 강원, 7위 FC서울 (이상 승점 24점), 8위 광주, 9위 성남 (이상 승점 22점), 10위 부산 (승점 21점)이 22라운

드 성적표에 따라 마지막 티켓을 획득한다.

광주가 성남을 꺾는다는 가정 하에 강원과 서울이 모두 패한다면 6위 자리는 광주의 차지가 된다. 광주가 승리하고 강원과 서울이 모두 비겨도 다득점에서 앞선 광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광주가 성남전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또한 광주는 올 시즌 첫 패배를 안긴 성남에게 갚아야 할 빛이 있다. 당시 1부 리그 첫 경기가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광주와 동일한 승점의 성남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전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만큼 저력이 있는 팀.

장단점도 명확하다.

21경기 19골에 그치며 최하위 인천 (15득점), 11위 수원 (18득점)에 이어 최소득점을 기록 중이다. 반면 실점은 24

점으로 상위권 울산 (15실점), 전북 (19실점), 상주 (23실점)에 이어 4위에 올라 있을 만큼 단단한 수비를 자랑한다.

성남을 꺾기 위해선 그들이 자랑하는 방패를 깨뜨려야 한다.

광주는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을 윌리안이 복귀한다.

펠리페, 엄원상과 함께 무서운 파괴력을 자랑하는 삼각편대가 재가동되는 만큼 빠른 역습과 마무리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주장 여름은 “강팀과의 연전, 무패행진을 통해 선수단 모두 큰 자신감을 얻었다. 한 경기 진 것에 대해 의기소침하지 않겠다”며 “성남이 시즌 첫 패배를 안긴 팀인 만큼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반드시 복수와 함께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가 성남을 꺾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파이널A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고흥고 신록, 한국新 ‘번쩍’

남자 역도 61kg급 용상, 인상은 학생新·합계는 한국주니어新

한국 역도 경량급 유망주 신록 (18·고흥고·사진)이 남자 역도 61kg급 용상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신록은 17일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61kg급 결선에서 인상 127kg, 용상 163kg, 합계 290kg을 들어 우승했다.

또래 중에는 신록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정현목 (전남체고)의 합계 기록은 242kg (인상 105kg, 용상 137kg)이었다.

신록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웠다.

용상 3차 시기에서 신록은 한국 기록인 163kg을 들었다.

국제역도연맹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 한국기준기록표를 만들었고, 한국 남자 61kg급 용상 한국 기록은 162kg으로 정했다.

같은 체급 실업팀 선배들도 아직 실



전에서는 들지 못한 용상 163kg을 고고생인 신록이 들었다.

신록은 인상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한국 학생기록 (종전 125kg)을 2kg 경신했고, 합계에서는 자신이 지난달 7일 실업선수권에서 달성한 한국 주니어기록 (종전 283kg)을 7kg이나 넘어선 신기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김시우가 17일 열린 US오픈골프대회 연습라운드에서 집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9월에 치르는 US오픈

더 질긴 리프...더 단단한 그린

US오픈 골프 대회는 종전까지 해마다 6월에 열렸다.

올해는 9월에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석 달 미뤄졌기 때문이다.

올해 대회 장소는 뉴욕 인근 마매리넥의 윈드풋 골프클럽. 지난 2006년 6월에 이곳에서 열린 US오픈과는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짧아지는 게 가장 두드러진다. 위도가 높은 뉴욕은 6월이면 오후 9시가 넘어도 경기를 치를 만큼 해가 길지만 9월에는 오후 7시에 해가 진다.

선수들의 티타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기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날씨다.

6월 윈드풋 골프클럽 기온은 섭씨 30도에 이른다. 습도가 높고 바람은 거의 없다. 무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대회 기간 18-21일 이곳 날씨는 아침이면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낮에는 25도가량으로 높아진다. 일교차가 크다. 오전 티오프하거나 오후 늦게 경

기를 마치는 선수는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한다.

바람도 여름보다는 강해진다. 바람을 읽고 파악하는 일이 보태진 셈이다.

2006년 이곳에서 경기를 치러낸 선수들은 연습 라운드를 해보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약명 높은 그린과 리프가 6월보다 9월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그린은 더 빠르고 단단하다. 습도가 낮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그린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는 단단해지고 빨라진다.

리프의 길이와 밀도도 다르다. 더 길어지고 더 뻣뻣하다. 막 자라기 시작한 6월과 달리 여름 내내 물과 햇빛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좋은 점은 잔디 상태가 여름보다 더 매끄럽고 균질하기 때문에 퍼트한 볼이 친 대로 구른다는 사실이다.

갤러리가 없기에 리프가 수많은 갤러리의 발길에 밟혀 엉망이 되는 일도 없다는 점도 선수들에게는 작은 위안이다. /연합뉴스

선동열·황영조·김수녕·故조오련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에

‘국보급 투수’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과 마라톤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 신궁 김수녕,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이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에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부터 10월18일까지 2020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한 국민 지지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9일 제1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와 9일 제1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와 평가 기자단의 정성평가 (70%)와 국민 지지도 조사 (30%) 결과를 합쳐 최종 선정되며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연합뉴스

를 바탕으로 최종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

국민 지지도 조사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메인 팝업창,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투표창 (<http://hero.sports.or.kr/2020vote>)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와 평가 기자단의 정성평가 (70%)와 국민 지지도 조사 (30%) 결과를 합쳐 최종 선정되며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대한체육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연합뉴스



뒷문 열린 KIA 5강 싸움 ‘어쩌나’



‘가을 야구’ 승부처 하위팀과 6연전 시작부터 삐끗
전상현 ‘빈자리’ 불펜진 난조 SK戰 뼈아픈 역전패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출전 희망을 이어가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마무리 투수 전상현이 돌아올 때까지 불펜의 필승 계투조가 얼마나 잘 버텨주는냐에 따라 KIA의 5위 탈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A는 16일 SK와의 홈경기에서 6대3으로 승리를 앞뒀다가 8회 1점, 9회 3점을 내줘 6대7로 역전패 했다.

5위 kt를 따라잡기 위해 1승이 아쉬운 상황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kt와 6위 KIA의 승차는 2.5경기

로 벌어졌다. 7위 롯데는 1.5경기 차로 KIA를 쫓아왔다.

필승조로 활약하는 홍상삼, 박준표, 정해영이 SK 타선에 차례로 점수를 헌납해 다 잡은 승리를 날렸다.

전상현이 오른쪽 어깨 급성 염증 진단을 받고 11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자 맏 윌리엄스 KIA 감독은 상대에 따라 맞춤형 투수를 쓰는 불펜 집단 마무리 대책을 밝혔다.

NC를 4대3으로 꺾은 13일 경기에서 전상현이 없는 필승조가 성공을 거뒀다. 경기 후반 NC 타선에 1점만 주고 선발 에런 브룩스의 승리를 지

켰다.

그러나 16일 두 번째 도전에선 3점의 여유를 승리로 잇지 못했다. 핵심 계투조로서 개개인의 부족한 이력만 유독 도드라졌다.

KIA는 이번 주 SK,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등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수를 쌓아 5위 싸움에 불을 지필 예정이었다.

하지만 SK에 2연패 일격을 당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 이겨야 본전인 16일 경기를 놓친 대가가 제법 크다.

게다가 고춧가루 삼성과 한화의

기세가 SK만큼이나 무섭다.

브룩스와 드루 가봉 등 외국인 원투 펀치가 등판한다고 해도 KIA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상대 타자와의 전적, 타자 유형 등 데이터를 신중하게 참조해 정해영과 박준표의 등판 순서를 정한다.

다만, 중간 계투로 오래 뛰어 다양한 경험을 지닌 박준표를 당분간 불박이 마무리로 기용해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프로에 입문한 세대기 정해영에게 소방수의 부담을 안기는 것보다 전상현이 돌아올 때까지 노련한 박준표에게 뒷문을 온전히 맡기는 게 불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연합뉴스